

漢詩로 描寫된 濟州의 物産과 民衆生活

부영근*

차례

- I. 머리말
- II. 濟州를 描寫한 漢詩 概況
- III. 濟州의 物産과 民衆生活
 - 1. 濟州의 物産
 - 2. 濟州民의 生活
- IV. 濟州를 描寫한 漢詩 性格
- V. 맺음말

I. 머리말

본고는 조선시대 제주를 묘사한 한시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조 이래 남아있는 작품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근거로 제주를 묘사한 한시 작품들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작품들이 가지는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제주도는 한반도 서남부 해상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의 섬이다. 제주도가 우리나라 최대의 섬이긴 하지만, 그 이국적 풍취나 경관으로 인해 육지인의 주목을 받은 것은 근대 이후, 특히 해방 이후의 일이다.

* 대구한의대학교 초빙교수

해방 이후 제주 4·3사태로 역사적 주목을 받기도 하고, 관광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60년대 이후에 와서야 제주도는 신비의 섬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역사적 현실이었다. 그리하여 근대 이전에는 비록 우리의 땅이긴 하지만 사람이 주거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

제주의 관리로 어쩔 수 없어 부임하거나,¹⁾ 혹은 유배로 불가피하게 갈 수 밖에 없는 곳이 제주도였다. 말하자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관광을 하거나 유람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거리상으로도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위치하고 교통상으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제주였다. 더구나 육지인이 그곳에 장기적으로 사는 것은 더욱 불가능할 정도로 육지의 상황과는 모든 것이 판이하였다. 이것은 문화 문물이 발달하기 이전인 상고 시대로 올라가면 갈수록 더욱 심한 현상이었을 것이다.

근대와 비교적 가까운 1840년,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어 제주도 환경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벌레와 뱀까지 따라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반 자나 되는 지네와 손바닥만한 거미들이 잠자리에 횡행하는가 하면, 처마에는 새끼 가진 참새가 날마다 뱀을 경계하여 지저귀곤 하는데, 이는 모두 북쪽 육지에서는 보지 못하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5월 그믐 사이에는 대단히 무서운 비바람을 한 차례 겪었습니다. 이때에 기왓장과 자갈은 공중을 날아다니고 큰 나무는 뽑혀 넘어져서 뿌리가 서로 이어졌으며, 바다에는 파도가 새까맣게 솟아오르고 그 가운데서는 천둥소리가 일어나는지라,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나란히 하고 무릎을 맞댄 채 서로 꼭 껴안아서 마치 스스로 보존하지 못할 것처럼 여겼습니다.”²⁾

1) 실제로 제주목사의 품계는 조선 초기 3품관을 보내기도 하였지만 전라우도방어사의 군직을 겸한 이후로 종2품관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였다. 당시 나주목사가 군직을 겸하지 않아 3품관이 파견되었던 관례로 볼 때 제주목사를 품계가 낮은 관리로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임한다는 표현을 하였다.

2) 『阮堂先生全集』 권3 書牘, <與權霽齋敦仁>. “蟲虺從以惱之 半尺之蜈蚣 掌大蜘蛛 橫橫枕席 簷際乳雀 日以警蛇 皆北地所未見 五月晦間 經一風雨大劫 瓦石飛舞空地 大樹倒拔連根 海濤黑立 中作霹靂 人皆并頭接膝 互相抱持 若不能自保者.”

유배 온 처량한 처지이어서 더욱 그러하겠지만, 추사 김정희가 느낀 제주도는 육지의 환경과는 너무도 달라서 도무지 정을 붙이고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 19세기 중반 무렵도 그러하거나 그 이전에는 더욱 정을 붙이고 살만한 곳이 아니었을 것이다. 제주도민은 어쩔 수 없이 제주도에 정착 적응하고 살겠지만, 육지인이 제주도에 착근하여 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자연 지리적 조건 때문에 제주도 자체 내에는 제주의 환경을 기록할 문자적 교양을 갖춘 사람도 적었거니와 더구나 제주를 소재로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추사는 일찍이 “제주는 풍토와 인물이 개발되지 못한 원시적 황무지 상태이고 섬 오랑캐와 같으며, 그 중 빼어난 인물이 있어도 통감이나 맹자 등 두 종류의 서책만 읽으며, 이들을 지도할 변변한 스승조차 없다고 하여 인문학적 불모지임”을 말한 바 있다.³⁾ 이런 지경이고 보면 제주를 소재로 제주인이 스스로 한시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⁴⁾

제주를 묘사한 한시는 제주도민에 의해서 창작이 거의 전무한 것이 문학사의 사정이었다. 결국 제주를 묘사한 한시는 제주도를 내방한 육지인에 손을 빌어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제주도를 방문한 사람들은 육지와는 너무도 다른 자연적 문화적 풍토와 환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이를 문학적 작품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 문학적 역사적 기록은 그 자체로서도 대단히 소중한 기록이거니와, 이 기록은 다른 문인 학자들에게 제주도를 소개하는 정보 제공의 역할도 하였다.

그리하여 제주도의 이국적 풍취를 동경하여 직접 유람할 동기를 제공하

3) 上同. “此中風土人物 天荒尙未闢破 惟魯無知 卽何異於魚蠻蝦夷 其中亦有秀拔超倫之奇 其所讀不過通鑑孟子兩種書而已...特無導場開發導師.”

4) 물론 전국적으로 개성 강화도 안동 제주에서 별시가 행해졌다. 특히 제주에서는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로 도내 여러 곳에서 서당과 향교 교육을 통해 정기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 문인이 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후기 들어 제주를 내왕하던 각국의 상인들과 국내의 내방객, 제주민들이 연합하여 창작한 작품집들이 필사본으로 제한적이거나 발견되고 서너 군데에서 시회를 조직하여 작품 활동이 이루어졌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도 하고, 臥遊를 통한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제주도를 답사하지도 않고 제주를 묘사한 한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현재 문헌상으로 제주를 묘사한 한시는 이미 고려 초에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고려초부터 제주를 묘사한 한시가 창작되기 시작하면서 조선조로 들어와서는 더욱 본격적으로 작품이 창작되고 이는 한문학이 종식되는 근대 초기에까지 이어졌다. 특히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제주도를 직접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문학 창작도 활발하였다.

관료로 제주에 부임하는 목민관, 정치적 사태로 제주에 유배된 謫客, 개인적 사정으로 제주를 유람 및 방문한 사람 등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문학의 기록이 풍성하게 되었던 것이 문학사의 실상이다.

조선조 동안 수많은 사화 속에서 양산된 유배객들과 전술하였듯이 제주의 목민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품계가 낮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리적 여건으로 좌천의 성격을 띠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연으로 제주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지역에 비해 풍성한 문학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들 문학 작품은 그 자체 문학사의 소중한 자료이지만, 한편 특정 지역을 소재로 문학화하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지방문학으로서도 대단히 소중한 자료이다.

제주에 유입된 이들은 지금까지 육지에서 경험하지 못한 제주도 특유의 지리적 환경과 문화적 체험을 하게 되고, 이 경이로운 체험과 생활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 곧 제주의 삶의 체험을 문학적으로 묘사한 것이다.⁵⁾

5) 지금까지 목민관 혹은 유배객 및 유람객으로 제주도를 찾은 인물로 알려진 사람은 冲庵 金淨을 선두로 白湖 林梯, 葵窓 李建, 桐溪 鄭蘊, 淸陰 金尙憲, 北軒 金春澤, 凝窩 李源祚, 石北 申光洙, 秋史 金正喜, 雲養 金允植 등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유입되었고, 조선후기 들어 그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문학적 성과로는 冲庵의 『濟州風土錄』, 白湖의 『南溟小乘』, 葵窓의 『濟州風土記』, 桐溪의 『濟州유배 시절 詩』, 北軒의 『囚海錄』, 寓庵의 『南征日記』, 石北의 『耽羅錄』, 凝窩의 『耽羅錄』, 淸陰의 『南槎錄』, 秋史의 『濟州流配 시절 詩』, 瓶窩 李衡祥의 제주 목사 시절 詩, 雲養의 『續陰淸史』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축적이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제주를 묘사한 한시 작품들을 고찰하려 한다. 특히 제주의 물산과 민중생활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 제주를 묘사한 조선시대 한시 작품들이 제주를 배경으로 한 전체 문학의 범주 속에 어떠한 위상과 가치를 지니며, 나아가 그것들의 성격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II. 濟州를 描寫한 漢詩 概況

제주를 묘사한 작품은 시대와 장르를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물론 來訪한 목적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의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작품 소재가 되었던 제주의 산수지리와 이국적인 명승고적은 그들의 표적이 되었고 또한 그들은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문학 작품으로 묘사하였다.

제주를 묘사한 작품을 세 가지 군으로 나눈다면 산수지리, 역사와 고적, 물산과 민중생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물산과 민중생활에 관해서는 본론에서 얘기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외 산수지리 역사와 고적에 관해 묘사한 작품들의 대강을 밝히는 것은 전체 논지를 잇는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조선의 선비들은 風光이 좋은 산수자연의 모습을 보면, 마치 꽃을 찾아 모여드는 나비처럼 찾아들어 자신들의 감흥을 쏟아내었다. 이에 산수자연에 관한 수많은 작품들이 남겨져 있다.

제주의 모든 곳이 絶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곳은 漢拏山을 포함한 주변, 漢拏山에서 바라다 보이는 바다, 정상에 내린 눈, 白鹿潭의 모습, 靈室 주변의 풍경, 五百將軍洞 등이다. 이러한 장소들을 포함한 수많은 漢拏山의 빼어난 모습이 시인에 따라 달리 옮겨졌다. 그 외에도 城山, 山房山, 松岳山, 龍頭巖, 龍淵, 都近川과 곳곳

에 산재한 많은 폭포들, 제주 주변의 빼어난 섬들은 시인 목객의 손을 비껴갈 수 없었다.

頂上寒潭自在清 정상의 찬 못 본래부터 맑끔하건만
 海盤難濯俗人纒 쟁반 같아 속인의 갓끈 씻기가 어려워
 仙翁且莫回吾駕 선옹이여! 내 수레를 돌리지 말아다오!
 曾是前身玉界行 나도 전생에는 선계에서 노닐던 사람이니⁶⁾

八吾軒 金聲九(1641~1707)의 白鹿潭을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그는 제주 판관으로 왔다가, 漢拏山에 올라 白鹿潭을 돌아보며 지은 것이다. 1구에서는 白鹿潭의 맑은 물을 묘사하고 있다. 2구에서는 白鹿潭을 신선들이 노니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3구와 4구에서는 자신이 마치 신선이 된 듯이 그곳이 신선이 노닐던 장소 같은 신비로움에 감동하며 신선인 양 노래하며 白鹿潭의 신비로운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海畔嶙峋石 바닷가에 삐죽삐죽 높이 솟은 돌인데
 龍頭漫設名 용두암 이름은 부질없이 지었구나.
 洪濤日夜擊 커다란 물결이 밤낮으로 때리니
 猶作風雷聲 마치 바람과 천둥소리 같구나.⁷⁾

이 시는 白湖가 제주도의 명소 중에 하나인 龍頭巖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龍頭巖은 제주를 대표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제주의 상징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곳이다.

작자는 전반부에서 소문이 무성한 龍頭巖의 위상을 한번 보고 실망한 듯 삐죽삐죽 바닷가에 높이 솟은 돌부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승천하는 용의 이미지를 살려 龍頭巖이라고 한 것은 너무 과칭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진다. 그러나 그도 잠깐 커다란 물결이 쉴 새 없이 부딪치는 과정에서 생

6) 金聲久, <白鹿潭>.

7) 2월 16일, <龍頭巖>.

겨나는 물보라와 천둥소리 같은 파도 소리가 용의 승천하는 기상을 느끼기에 충분함을 깨닫고, 거침없고 호방한 자신의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제주의 상징인 漢拏山과 그 주변, 漢拏山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던 瀛邱, 龍頭巖, 正方瀑布를 위시한 많은 폭포들, 山房山 등은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 다양한 소재로 활용되어 각각의 특유한 모습이 시로 묘사되었다.

이상에서 논의한 작품 외에도 제주 산수를 묘사한 한시 작품에는 제주의 다양한 산수를 소재로 지은 작품이 많이 남아 있다. 제주, 길목, 정외, 조천, 성산의 모습, 인근의 섬, 각종 산과 봉우리, 곳곳에 산재한 사찰과 암자, 제주로 들어오는 과정과 뱃길, 비, 계절의 변화, 계곡을 소재로 지은 작품 등 제주 산수를 묘사한 다수의 한시 작품이 남아 있다.

제주도에는 고대국가 시절 이곳을 배경으로 세 신인이 태어나,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는 탐라국 개국 신화가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탐라의 역사가 이해되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시의 소재로 적극 활용되었다.

이처럼 三姓穴은 탐라국 개국 설화의 현장으로, 제주도의 역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이다. 따라서 제주를 묘사한 한시 작품을 남긴 작자들은 三姓穴을 소재로 활용하여 무엇보다 창작활동을 많이 하였다. 金聲久의 <毛興穴次金淸陰韻>, 李源祚의 <三姓穴>, 金聲久의 <毛興穴次金淸陰韻>, 尹鳳朝의 <毛興穴次淸陰先生韻> 등과 같이 제주도의 설화가 남긴 현장을 역사적 소재로 부각시켜 많이 다루었다. 이처럼 탐라 역사의 상징인 三姓穴은 제주를 묘사한 한시 작품을 남긴 많은 시인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과거급제 후 부친을 만나 뵙기 위해 제주를 내방했던 白湖 林悌(1549~1587)는 제주의 여러 곳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三姓穴을 찾았는데, 그곳의 느낌을 다음의 시를 통해 드러내었다.

昔有三異人 옛날에 세 분 이인이 계셨는데
湧出於茲島 이 섬에서 솟아서 나오셨네.

古穴餘鼎分 옛날의 구멍은 솔밭처럼 나뉘어졌는데
 埋沒生春草 파묻혀 없어지고 봄풀만이 자라네.
 (缺)
 奇蹤問未能 기이한 발자취 묻지도 다 못하여
 日暮牛羊道 우양이 가는 길에 해가 저무네.⁸⁾

주지하듯이 三姓穴은 탐라국의 역사를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고대국가 시절 한 왕조의 기운이 모여져 금방이라도 몽클몽클 솟구칠 것 같아, 이곳에서 탐라국을 열었던 三乙那의 모습을 상상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세월 앞에 봄풀만이 무성한 모습에서 얼마간 무상함을 드러내었다. 길재 선생이 '산천은 의구하되 인물은 간 데 없다'며 몰락한 고려왕조의 모습을 돌아보고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白湖 역시 역사의 뒀안길에서 비상감이 온 몸으로 파고들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제주도에 대한 문학적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三乙那다. 耳溪 洪良浩(1724~1802)도 三乙那를 소재로 記文을 남기기도 하거니와,⁹⁾ 조선조 후기에 이르기까지 三乙那는 주요한 문학적 소재가 되었던 것이다.

조선조 들어, 제주가 유배지로서의 지리적 잇점을 갖고 있어, 지속적으로 유배객들이 들고 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레 유배의 역사가 형성되고, 이것은 시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주를 묘사한 한시 작품을 남긴 대표적인 작가 군은 제주로 부임했던 赴任官과 流配客들이다. 赴任官들은 자신이 주로 머물렀던 官衙, 公廡, 防護所들을 자연스럽게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유배객 또한 관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마찬가지로 이러한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창작활동을 한 바 있다.

8) 2월 16일, <毛興穴>.

9) 진재교,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제3부 2장 <이계(耳溪) 홍양호론(洪良浩論)>, 소명출판, 2001.

Ⅲ. 物産과 民衆生活

제주도는 본토와 떨어져 역사 지리 등 많은 부분에서 다른 것들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이국적 환경을 바탕으로 길러진 문화와 풍속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제주도의 이국적인 物産은 조선조 제주도를 다녀간 시인 묵객의 눈에는 매우 신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또한 이것을 시적 소재로 적극 활용하여 작품 활동을 하였다.

1. 濟州의 物産

육지와 다른 제주만의 물산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는 말과 굴이 있으며 오늘날은 육지 어느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수선화도 중요한 물산 중에 하나이다. 그 가운데 말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굴은 제주를 대표하는 진상품으로 제주에 유배 왔던 桐溪 鄭蘊(1569-1641)이 ‘龍卵’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수선화는 秋史 金正喜(1786-1856)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자주 언급했던 것이다.

구체적인 작품 군을 살펴보자. 직접 굴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는 李源祚의 <詠橘四絶>, 高鳴鶴의 <厥包橘柚>, 吳章獻의 <家家橘柚>, 正祖大왕의 <詠橘>, 宋相琦의 <蒙賜柚復用前韻示僚友>, 失名氏의 <橘> 등이 있다.

말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는 金聲久의 <送歲貢馬有感>, 李元鎮의 <閱馬牛羊>, 李海朝의 <驅馬篇>, <山屯牧場點馬留宿村舍>, 蔡濟恭의 <蒙賜濟州貢馬>, 趙觀彬의 <馬屯>, 金日海의 <放牛> 등이 있다.

이처럼 제주를 대표하는 물산인 굴과 말은 제주를 찾은 많은 문인들의 시적 소재가 되었다. 이러한 제주의 특산물인 말과 굴은 단순한 물산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이러한 물산을 공물로 바쳐야 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제주민들은 또 다른 고통을 받기도 한다.

주지하듯이 아버지 인성군의 죄에 연좌되어, 제주에 유배왔던 葵窓 李健(1614~1662)은 제주의 물산 중에 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주도

의 공마에 대해 시로 읊기도 하였다.

海中牧役最爲苦 외딴 섬에 말을 기르는 부역 가장 힘드니
 顛坑墜江猶不評 구덩이에 빠진 거나 강물에 떨어진 거나 가리지 않네.
 通判但知充馬數 제주 통판 다만 말의 숫자 채움만 알아
 不論流血害蒼生 피 눈물 나는 백성의 괴로움 개의치 않네!¹⁰⁾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치열했던 전란은 임진왜란이었다. 치열했던 왜란을 겪으면서 조선 정부는 군마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따라서 제주도에 貢馬를 더 늘이도록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에 貢馬를 담당하는 관리들은 군마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많은 무리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 國馬場에서 기르던 말이 죽으면 온갖 계책을 내었다. 가죽으로 받지 않고, 꼭 말로 받아서 그 숫자를 채우려고 했다는 것도 그런 폐해 중의 하나이다. 제주민들은 말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것이다. 작자는 바로 그런 장면을 여실히 보여주려 하였다. 말은 제주의 물산이지만, 이는 자연적으로 나는 물산이 아니다. 정책적으로 제주에서 말을 기르도록 했던 것이다. 1구에서는 바다 가운데 섬에서 말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말하고 있다. 2, 3구에서는 말의 숫자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당시 貢馬의 폐단에 대해서 묘사하였다. 건장한 말만이 아니라, 부상당한 말이나 죽은 말조차 숫자로 채워 넣기에 급한 제주통판의 부조리한 행위를 그려내었다. 4구에서는 이러한 부조리한 행위에 고통 받는 것은 제주민임에도 불구하고 통판은 이러한 제주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고 묘사하였다.

얼마 뒤 제주안무사로 내려온 淸陰 金尙憲(1570-1652)에 의해 이러한 폐해가 적나라하게 고발되는 계기를 낳는다. 어쨌든 貢馬의 폐단이 얼마나 가혹했던지, 葵窓은 친척을 죽여 죽음을 면하려고 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시로 남겼다. 그는 좋은 종마를 관가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눈을 멀게 하고, 관가에서 말을 징납하기 위하여 말 기르는 집의 처를 가두고, 자식을 때리

10) 이진, 『葵窓集』122권. <有歎>.

는 등 하지 않는 일이 없는 현실을 백성들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드러내려 하였다.¹¹⁾ 이 같은 공마에 대한 관심은 후기 들어 李喜豊의 <濟州貢馬歌>라는 작품을 낳았다.¹²⁾

또 다른 작품을 보자.

經秋行色海山隈 가을이 지난 바다와 산을 두루 다녀
 閱盡閑中鬣角回 한가히 말과 소를 둘러보고 돌아왔네.
 白馬似驅潮水入 흰 말떼를 몰면 조수가 밀려드는 듯
 靑牛疑引板車來 검은 소는 널 수레를 끌고 가는 듯하네.
 壯嫌泛駕堪礙耳 젊어서는 가마 띄우기 꺼려하여 헐떡였는데
 老免充蟻却幸哉 늙어서는 왕개미에 붙여짐을 면했으니 다행스럽네.
 更叱初平群臥石 다시 황초평이 돌 무리를 꾸짖어 양으로 변화하게 하듯
 慚無五穀大夫才 오고대부의 재주 없음이 부끄럽구나!¹³⁾

이 시는 제주목사로 부임 했던 李元鎮(1594~?)이 말과 牛羊을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그는 1653년 제주 목사로 있을 때 하멜 등 和蘭人이 표창하자 이들을 서울로 압송했으며, 『耽羅誌』를 편수하기도 하였다.

작자는 우선 제주의 산야를 널리 돌아다니며 방목되고 있는 마소들의 한가로운 모습을 묘사함으로 시작하여, 소떼들을 潮水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마소와 관련된 여러 고사들을 인용하였다. 黃初平이 어려서 양을 치다, 도사를 만나 金華山에 들어가 40년간 도를 닦아 신통력을 얻었다. 훗날, 그의 형이 기르던 양들을 어디에 두었느냐 물었을 때, 그는 쌓여 있는 하얀 돌을 꾸짖어 수백 마리의 양으로 변화시켰다는 고사를 인용하

11) 김상헌, 『南槎錄』, 11월 18일, 壬子.

12) 延安 인이고 海南에 거주하였다. 그는 <艸衣大宗師塔碑銘>을 짓기도 하였으며 송과거사로 불렸다. 문집으로 『松坡先生遺稿』가 전한다. 그의 문집에 <濟州貢馬歌>와 더불어 <送濟州安生序>가 들어있는데 아마 제주와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것 같다. 실제로 조선후기에 강진 해남 일대의 무리들이 제주를 내왕하면서 문학 활동을 하였는데 그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13) 李元鎮, <閱馬牛羊>.

기도 하였다. 그리고 진나라 穆公이 다섯 마리 양의 가죽으로 초나라의 죄수가 된 百里奚를 속죄하여, 국정을 맡긴 고사를 인용하였다.

제주를 대표하는 물산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꺾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를 찾은 많은 문인들에 의해 작품으로 묘사되었다.

洞庭佳種又幽鄉 동정호의 좋은 종자 조용한 고장에 심어져
十月霜風箇箇黃 시월 서릿바람에 알알이 노랗다.
海外遙傳千里色 머나먼 바다 밖에서 좋은 빛을 전해 와서
盤中新供一包香 한 보자기 향기가 소반 위에 새로 올려 졌네.
親頒壁水君恩大 친히 성균관에 나누어주니 임금님 은혜 크다 하고
每薦丹門聖孝長 매양 종묘에 친신하여 군왕이 길이 효도하네.
瓊實也從南極至 옥 같은 열매가 다시 남쪽에서 오면
遐邇長享各分嘗 멀고 가까운 곳에 나누어주어 길이 맛보게 하여야지.¹⁴⁾

이 시는 正祖大王(1752~1800)이 제주의 대표적인 진상품인 꺾을 소재로 題詠한 작품이다.

正祖는 꺾을 한량없는 임금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매개체로 인식하기도 하고, 전통적인 효도의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작자는 제주에서 바쳐진 특산품인 꺾을 공물로 받고, 중국 동정호에서 나는 꺾이 국토의 남단인 제주에서 수확되어, 노랗게 익은 모습으로 향기롭게 소반에 놓인 모습을 기꺼운 듯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성균관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종묘 제례에 제물로 바치기도 하더니,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려는 다짐을 통해 군왕의 길로 묘사하였다.

제주를 대표하는 물산 중에는 말과 꺾 이외에 선비들이 자신을 수양하는 도구로 애지중지하였던 수선화를 들 수 있다. 수선화는 조선후기 들어 제주에서 찾은 대표적인 물산이다. 새로운 소재에 목말라 하던 조선조 문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에 충분한 소재였다. 수선화를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는 吳廷賓의 <水仙花>, 吳泰稷의 <水仙花>, 金左根의 <咏水仙花>, 愼

14) 正祖大王, <詠橘>.

鴻錫의 <水仙花>, 失名氏의 <水仙花>, 金亮洙의 <三月見水仙花> 등이 있다. 이처럼 제주만이 가지는 독특한 수선화는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남긴 여러 문인들에 의해 시적 소재로 활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차를 마시는 것은 어느 시대이건 관계없이 수행의 과정으로 인식되어, 다도는 문화적 한 부분으로 계승되었다. 예컨대 徐居正(1420-1488)의 『太平閑話滑稽傳』에서 陶隱 李崇仁(1349-1392)은 차의 효용을 수행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¹⁵⁾ 제주 관련 한시 작품에도 이를 소재로 창작된 작품이 있다. 작품으로는 金亮洙의 <茶煮>, 高永昕의 <煮茶>, 失名氏의 <煮茶>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차와 문화의 관련성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끈끈한 것이었다. 따라서 다도를 문학작품으로 묘사한 것은 어느 정도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제주 관련 작품을 남긴 많은 시인들도 이것을 가지고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이처럼 다양한 제주의 물산은 제주민의 삶을 드러낸 것이 많았다. 제주를 찾은 시인들은 이러한 물산에 얽힌 제주민의 삶에 대한 다양한 한시 작품을 남겼다.

2. 濟州民의 生活

어느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민중의 삶은 중요한 한시 작품이 소재가 되었다. 조선조에 제주의 여인들은 제주로 들어오는 군사를 맞이하고 보내면서, 끊임없는 인연 속에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이러한 모습은 이방인에게 이색적인 체험으로 받아들여졌고, 이것을 소재로 지은 林梯 <迎郎曲>, <送郎曲>, 南九明 <迎郎曲>, <送郎曲>, 李增 <效林白湖迎送郎曲>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15) 徐居正, 『太平閑話滑稽傳』, <自樂處>, 陶隱曰 “山房淨室, 明窓淨几, 焚香對僧, 煮茶聯句, 此足樂也” (“도은이 말했다. 산방의 청정한 방, 밝은 창가 깨끗한 책상, 향을 사르고 증과 마주하여 차를 끓이며 연구를 달지. 그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야.”)

白湖가 제주도를 여행하며 남긴 기록인 『南溟小乘』의 2월 16일자 기록에는 <迎郎曲>, <送郎曲> 등이 詩가 실려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으로 남성들이 배에 생업을 매달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조난을 당하여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였으므로, 여성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제주도만의 독특한 풍속을 취재한 작품으로 紀俗的 경향의 시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¹⁶⁾ 곧 짝을 이루지 못한 여인들이 매년 3월이면 화장을 하고, 술을 들고서, 援兵赴防하러 섬에 들어오는 남정네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살다가, 8월 罷防할 때, 그들과 슬픈 이별을 한다는 내용이다. 耽羅의 일부다처의 현상과 <迎郎曲> <送郎曲>의 기사가 『芝峯類說』 가운데도 이미 보이는 것을 보면, 그런 풍습이 오래 전 송되어 오는 듯하다.¹⁷⁾

가)

三月三日桃花開 삼월이래 삼진날 복사꽃 활짝 피어
雲帆片片過海來 돛단배를 두둥실 바다를 건너와서
妍粧調笑別刀浦 단장 곱게 하고 벨돗개서 노닐다가
岸上斜陽連袂廻 해지는 언덕위로 팔짱끼고 돌아온다네.¹⁸⁾

朝天館裏泣愁紅 朝天館안에서 연분홍 눈물 적시는데
黃帽催行理短蓬 사공은 어서가자 돛을 바삐 올리네.
東風不道娘娘態 마파람이 새 각시 심사를 아랑곳 않고
吹送飛舟度碧空 배를 일른 날려 靑空으로 떠가누나.¹⁹⁾

나)

三時出望別刀堡 삼시 세 때 벨돗개 보루에 올라 바라보니
簇簇商帆何處浦 상선들 뿔뿔이 어느 포구로 가는가!

16) 김명순, 『조선후기 한시의 민풍 수용 연구』, 보고서, 2005.

17) 이수광, 『芝峯類說』, 風俗, <林梯之送郎曲>.

18) 2월 16일, <迎郎曲>.

19) 2월 16일, <送郎曲>.

同類相呼促理粧 친구들을 서로 불러 몸치장을 재촉하면
 櫓聲東入朝天浦 노 짓는 소리 동쪽의 조천포로 들려오네.
 炎海極天風浪多 먼 남쪽 끝 바다 풍량이 많은데
 郎君行李今如何 임의 행장은 지금 어떻게 꾸렸는지!
 從前好事入春夢 앞서는 좋은 일로 봄꿈을 꾸었는데
 枉被傍人作笑罔 잘못되어 곁 사람들의 비웃음만 끌어들었네!²⁰⁾

다)

瀛洲三月好花開 영주의 삼월 달 봄꽃이 피면
 兒女癡粧候客來 길게 화장한 아녀자들 손님 맞으러 나온다.
 盃酒情親笑語欸 술잔에 정 담았으나 웃음소리 서먹해
 黃昏携手與同歸 황혼에는 손잡고 함께 더불어 돌아가네!
 妾顏安保似花紅 머물러 있을 때는 첩의 얼굴 꽃같이 빨갱다가
 每向津亭泣去篷 나룻정자에 나갈 때마다 떠나는 거룻배에 눈물짓네!
 三月逢君八月別 삼월이면 임 만나고 팔월이면 이별하니
 自君之別霜闌空 이별한 뒤부터는 빈 규방에 서리지네!²¹⁾

가)는 白湖의 <迎郎曲>, <送郎曲>이다. 앞의 것은 <迎郎曲>에 해당되고, 뒤의 것은 <送郎曲>이다. <迎郎曲>은 삼월 삼진날에 복사꽃이 흐드러질 때, 돛단배를 통해 들어오는 병사들을 마치고 바다에 나갔다가 물귀신이 된 줄 알았던 낭군이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양 반가이 맞이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당시 제주 여성의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다.

<送郎曲>은 살아 돌아올 기약 없는 사지의 뱃길로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 눈물 콧물 흘러가며 애절하게 헤어지는 상황을 포착해서 그렸다. 헤어지는 이들의 마음은 아랑곳 않고 사공은 돛을 올리고 바쁘게 떠난다. 남편을 태운 배는 미끄러지듯 시야에서 사라지고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원하며 바라보는 아낙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지키고 서있는 모습이 보일 듯하다.

20) 南九明, <迎郎曲> <送郎曲>.

21) 李增, <效林白湖迎送郎曲>.

작자는 앞의 <迎郎曲>에서의 화사하고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送郎曲>의 기약할 수 없는 이별에 아쉬워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드러내 시상을 고조시킴으로서 이국적인 풍물을 세상에 알리려 하였다.

나)는 1711년에 제주 판관으로 부임하였던 寓庵 南九明(1661~1719)의 작품이다. 그는 목민관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던 인물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 시는 寓庵이 제주의 여인들이 제주로 파견되어 들어오는 군인들을 마치 낭군인 양 맞이하고 보내는 과정에서의 삶의 애환을 절실히 표현하였다.

다)의 시 역시 濟州按察兼巡撫御使로 제주에 왔던 李增(1628~1686)이 위의 두 시와 똑 같은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1, 2구는 제주 여인이 외지인을 맞이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삼월이 되어 제주에 배가 들어올 때에 제주의 여인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을 맞이하려고 분주히 단장하고 맞이한다. 낮설기도 하지만 묘한 애처로움이 느껴진다. 3, 4구는 낮선 이방인과 만남의 과정을 묘사했다. 여인들이 낮선 사내들 앞에서 술 따르고 그들 앞에서 웃지만 그러나 낮가림에 그 웃음소리는 어딘가 어색하다. 그러다 이내 이방인과 낮가림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서로 친밀한 정이 돈독해져서 저녁 황혼 무렵에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5, 6구는 이별장면을 묘사했다. 그렇게 함께 여러 달 지내다 이별을 할 때면 여인은 포구에서 이방인 남성을 떠나보내며 눈물짓는다. 7, 8구는 작자의 시선이 보인다. 3월이면 낮선 이방인을 맞아 함께 지내다가도 8월이면 떠나보내야 하는 제주 여인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있다.

이상의 세 작품은 같은 소재를 가지고 다른 시대 다른 사람이 계승 창작하였다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어 당시 제주의 모습을 대비시켜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당시 제주의 민중은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다. 바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면서 애환이 담긴 곳이다. 고기를 팔고, 전복을 따며, 고사리를 캐는 과정은 실상을 모르고 보면, 어느 정도 낭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변방의 고달픈 민중들이 사는 치열한 삶의 현장인

것이다.

이러한 민중의 삶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다.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李衡祥(1653-1733)과 제주도에 유배 왔던 金春澤(1670-1717)의 <潛女歌>의 전통을 이은 듯한 吳箕南의 <潛婦>, 失名氏의 <潛水女歌三十九韻> 등이 있다. 전복을 캐는 고달픈 해녀의 삶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는 失名氏의 <採贔>이 있다. 고사리를 캐는 시골 아낙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는 失名氏의 <採薇>가 있고, 어느 부둣가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에 묻혀 살아가는 여인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는 金亮洙의 <販魚> 등이 있다. 이처럼 자맥질을 하며 살아가는 잡녀, 고사리를 캐는 아낙, 고기를 파는 아낙 등 제주의 民衆은 많은 문인들에 의해 작품으로 묘사되었다.

다음 작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腥風吹動海門開	비린 냄새 질편한 바다 시장 열리면
村女相催犯曉回	이른 새벽 시골 아낙 서로 재촉하네.
折取蘆枝三尺許	석자짚의 갈대가지 꺾어서
貫魚纔了貫錢來	고기를 다 꿰고 나면 돈 꾸러미 온다. ²²⁾

전술한 것처럼 제주 출신으로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후진을 훈도하는데 일생을 바쳤던 金亮洙(1828~1887)가 魚市場에서 고기를 파는 아낙을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작자는 이 시의 소재로 쓰인 고기를 파는 아낙의 모습을 통해 고달픈 변방 민중의 삶을 짚진하게 묘사하였다. 하루 종일 질편한 비린내 속에서 삶을 보전하려는 처절한 변방 아낙의 모습을 시인은 얼마간 비분강개함도 느끼면서 자신의 삶과 대비하였다. 몇 푼의 돈에 매달려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어시장 아낙의 모습은 일견 당시 변방 아낙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 보인다.

이 작품에서 고달픈 어촌의 상황이 잘 묘사되었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

22) 金亮洙, <販魚>.

는 기약 없는 삶의 고통이 느껴진다.

잠녀들의 採鮑하는 고통도 시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彼娘紅髮爲誰容	저 아가씨 무엇 때문에 머리가 바래졌는고
慣學滄浪自取從	푸른 물결에 익어서 저절로 그렇게 되었네!
身寄一匏風泛泛	바람이 잔잔하면 몸을 태왁에 의지하고
手將百貝月溶溶	몇 마리 전복을 따고 나면 어느새 달이 떴네!
食食水石經三歲	먹고 살기 위해 수석을 헤치며 삼년을 보내고
錯貢春秋入九重	철따라 대궐에 조공을 바쳐야 하네!
圓滿固非倉卒得	소라 전복이 창졸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嘗之不忍到心胸	가슴 속 몽클하여 차마 먹지 못한 이도 있었네!23)

이 시는 작자가 밝혀지지 않은 전복을 캐는 과정을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전복을 캐는 것은 해녀들의 일상이고, 어찌면 당연한 노동의 현장이다. 하지만 관리들의 백성들에 대한 거둬들이는 착취로 벌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백성들의 힘으로 극복하기에는 그 고리가 너무 두껍다. 머리가 바래고, 달이 뜰 때까지 쉬지 않고 전복을 따지만,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할 수 없는 제주 해녀의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작자는 작품 전반에서 하루 종일 고달픈 삶의 현장으로 내몰리면서도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잠녀들의 삶에서 어려운 변방 민중의 삶을 대비하였다. 국가의 주요한 세수원이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렵게 끝없는 착취 속에 새벽부터 밤늦도록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한다. 기본적인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는 잠녀의 삶은 고달픈 민중의 삶을 대변하는 듯 보인다.

조선조에는 제주의 여인 중에 굶주린 제주의 백성을 구제한 萬德(?-?)이 있었고, 趙貞喆(1751-1831)을 구한 義女 洪娘이 있었다. 이들은 당시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을 남긴 많은 문인들에 의해 작품의 소재로 활용되었는데, 趙貞喆의 <題洪娘墓> <獄中悲恨> <洪娘發鞞絕>, 朴齊家の <送萬德

23) 佚名氏, <採鮑>.

攷濟州詩>, 金炳潞의 <題烈婦光山金氏閭>, 鄭在三의 <題烈婦金氏閭>, 高錫九의 <題吳門烈婦閭>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제주 민중의 고달픈 삶을 소재로 지은 작품이 있다. 금오랑으로 제주를 찾았던 申光洙(1712-1775)의 <濟州乞者歌>에 영향 받은 작품과 나그네의 고달픈 시름, 배를 짜는 아낙의 삶, 제주의 어부들과 초부들의 삶, 제주의 처녀, 무속, 여러 가지 일상을 소재로 지은 작품들이 다수 남아 있다.

이같이 제주민의 질곡된 삶은 제주를 찾은 많은 시인들의 입을 통해 펴진하게 묘사되어 다양한 작품으로 묘사되었다.

IV. 濟州를 描寫한 漢詩 性格

제주를 묘사한 한시 작품들은 크게 내용적으로 비슷한 정서를 공유한다. 여기에 소재의 공통성이 결부되어 일정한 경향성을 띤다. 이것은 창작 문인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대략 제주와 관련된 작품의 담당층은 내도한 이유에 따라 赴任官, 流配客으로 갈리는데, 이것은 분명한 목적성을 수반한다. 따라서 작자들은 정서적으로 자기의 내도 목적과 부합된 시각으로 제주를 바라다볼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제주를 찾은 赴任官들은 목민관의 심정으로 제주 백성들의 생활을 들여다보고, 그것에 따른 牧民官의 심정을 작품에 드러내었다. 유배객들은 얼마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당시 변방의 아픔을 공유하려는 의식을 드러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인식의 측면에서 비슷한 정서적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공통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작품에는 제주만이 가지는 이국적인 소재들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제주만의 천연한 자연적인 소재는 시인묵객들에게 많은 감흥을 주었다. 제주라는 고립된 특수한 환경에서 제주만이 가지는 절경들은 이방인의 눈에 새롭고 신기함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도한 사람들은 그것들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역시 작자들은 이러한 소재를 간과하지 않고 작품의 소재로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으로 전래되는 경향성을 떠기도 하였다. 이국적인 물산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폐의 원인이 되는 제주에서 중앙에 바치는 공물, 예컨대 말, 전복을 포함한 해산물, 감귤 등의 토산물을 가지고 작품 창작의 소재로 많이 활용하였다.

제주를 묘사한 한시 작품들 중에는 민중생활에 주목한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 특히 林梯의 <迎郎曲>, <送郎曲>은 제주의 풍속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1679년 濟州按察兼巡撫御使로 임명되어, 제주를 찾았던 李增과 1711년 제주관관을 지냈던 南九明 등에 의해 계승 창작되었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그 외에도 申光洙는 지방의 착취 현장을 직접 목도하고, 비분강개한 심정으로 <潛女歌>, <濟州乞者歌> 등의 시를 지어 당시 변방의 황량한 모습을 거름없이 드러내었다. 이 작품들은 지식인으로서의 불합리한 사회고발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중앙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직접 목도하지 못해서, 현실감이 어두워 묵과되는 부분들이 철저하게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려는 작가정신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리들이 지방의 모습을 여과없이 임금에게 보고하려는 『詩經』 이래 나타나는 '採詩觀風'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지역의 물산과 민중생활을 소재로 창작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이러한 작품들이 가지는 한계점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것들이 가지는 순수한 가치를 폄하하는 일이다. 적어도 제주는 당시 시인들이 주목하기에 충분하였다는 제주만이 가지는 상황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제주라는 특성을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시들에 대하여 기존의 중앙 집중적인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다르게 해석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전 시대 후예로서의 책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제주를 묘사한 한시의 성격을 얘기하면, 조선시

대 다양한 시 흐름의 이국 풍물을 묘사한 풍속시의 하나로 지방문학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특이한 풍물과 민중생활을 통한 한시의 지역 내지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동시에 조선시대의 한시와 기록문화의 특징과 지리지로서의 성격과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앞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논문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제주도는 지형학적으로 중앙과의 교통이 소원하였던 곳이다. 자연적으로는 기상이 불순한 지역으로 흉년이 잦아 생활조건이 좋은 편이 못되었다. 따라서 제주 민의 생활 조건도 그다지 좋지 못하였다. 문화적으로도 타 지역과의 소통이 적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島嶼 문화를 계승해 왔다. 따라서 제주에 온 赴任官이나 流配客들은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였고, 여기서 겪은 체험의 기록을 자세히 남긴 바 있다.

赴任官이나 流配客들이 제주에 들어온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기보다 특별한 체험에 속하였다. 이들이 평생 무탈한 삶을 살았다면 새로운 공간에서 체험하면서 창조적 저술활동을 할 기회가 적었을 것이다. 그들은 절해고도인 제주에 들어온 것을 계기로, 이곳에서의 특별한 체험과 정서를 문학으로 포착함으로써, 주옥같은 작품을 남긴 바 있다. 이러한 문학의 산생은 한문학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문학이란 생활의 반영이며, 작가의 생활적 체험을 문학적으로 표출한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그 체험의 농도와 곁에 따라 작품의 성취도 달라진다고 할 때, 이 점에서 제주를 묘사한 작품들은 다른 문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역민의 삶과 생활 정서의 진실성을 찾아 볼 수 있는 점은 소중한 성과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역설적으로 제주를 묘사한 한시 작품들은 조선조 한문학의 중심이 아닌, 주변을 이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주로 제주의 山水 地理, 歷史와 古蹟, 物産과 民衆生活의 소재를 통해 창작되었다.

이상의 성과들을 종합해 볼 때, 조선후기 들어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士들은 기존의 틀인 중앙 집중적 집필 태도에서 벗어나 소재와 대상의 확대를 통해 지방의 고유문화를 그들의 전문적인 역량으로 변방의 문화, 아니 제주의 고유한 문화나 풍물이 작품화되어, 중앙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문학사적 큰 의의라고 할 것이다. 현대적 측면에서도 그 간에 중앙에 집중되었던 연구의 역량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여, 제주 한문학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 핵심어: 제주한문학, 물산과 민중생활, 제주의 산수지리, 역사와 고적

<참고문헌>

김정희, 『阮堂先生全集』.
 이 건, 『葵窓集』.
 김상헌, 『南槎錄』.
 임 제, 『南冥小乘』.
 진재교,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제3부 2장 「이계(耳溪) 홍양호론(洪良浩論)」, 소명출판, 2001.
 김혈조, 『박지원의 산문문학』, 대동문화연구총서2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안대회, 『18세기 한국 한시 사 연구』, 소명출판, 1999.
 줄 고, 「동계 정온의 제주 유배 시 고찰」, 『동아인문학』제11집, 2006.
 _____, 「백호 임제의 ‘남명소승’ 연구」, 『영주어문』제12집, 2006.
 _____, 「병와 이형상의 한시 연구」, 『계명한문학』제14집, 2000.
 _____, 「북헌 김춘택의 수해록의 한 국면」, 『한문학 연구』제17집, 계명

한문학회, 2002.

- _____, 「석복 신광수의 '탐라록' 고찰», 『영주어문』 제8집, 2004.
_____, 「일제 강점기의 지역 선비의 삶-낙애 채병원 선생의 삶을 중심으로-», 『동양예학』 제16집, 2007.
_____, 「지방문학으로서 석복의 한시», 『동아인문학』 제6집, 2004.
_____, 「청음 김상현의 '남사록' 고찰», 『탐라문화』 제29호, 2006.
_____,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 시 고찰», 『영주어문』 제11집, 2005.
_____, 「제주산수를 형상화한 한시 소고», 『영주어문』 제14집, 2007.
_____, 「한시로 형상화된 제주의 역사고적», 『한문학연구』 제22집, 2008.

<Abstract>

Visualizing Sino-Korean Poems products and life of
common people of Jeju

Boo Young-geun

Literary works which visualize Jeju have been created continuously beyond ages and genres. Even if they wrote records of various types depending on the visiting purpose, they saw both the places of natural beauty and historic interest and the humble life of common people living in remote regions, and depicted them on their writings without omission.

From this perspective, the Sino-Korean poems visualizing Jenu are essential for us to understand the periphery, not core, of Sino-Korean Literature of the Chosun Dynasty. Those works mainly dealt with such subjects as mountain, water, geography, history, historic places,

products and life of common people.

As the society in the late Chosun Dynasty changed drastically, scholars deviated from the traditional centralized writing attitude, and expanded the subjects and objects of writings to unique local cultures, thereby creating works based on the unique culture and natural features of Jeju and providing the opportunity to introduce them to the metropolis. This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Even from the modern perspective, it is a good opportunity to reveal the Sino-Korean literature on Jeju completely by allocating the capability of study - which has been focused on the metropolis so far - to local areas.

- Key words: Sino-Korean literature on Jeju, products and life of common people, Natural features and geography of Jeju, history and historic places,